

# 올 쌀 재배면적 3.7만ha 줄어...쌀값 5% ↑·격리비용 4400억 ↓

## 농식품부, 2023년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 가루쌀 등 전락작물 심어 과잉 생산 억제

정부가 쌀 적정생산과 쌀값 안정, 시장격리 비용 절감을 위해 올해 벼 재배면적을 3만 6000ha 줄인다. 논에 가루쌀 등 전락작물을 심어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고, 수확량을 조절해 쌀값 하락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과잉 생산에 따른 격리비용 4400억원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쌀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쌀 적정생산 대책

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부터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락작물직불제 시행과 농가 설명회 등을 추진하는 등 이번 대책을 확정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쌀 소비는 매년 감소 추세이지만 2021년산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37만5000t(10.7%) 증가하면서 작년 쌀값이 연초 5만889원(20kg 기준)에서 9월말 4만 393원까지 하락했다.

정부는 시중에 남아도는 쌀 45만톤 격리하기 위해 1조원을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농가와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어려움을 겪었다.

농식품부는 올해 구조적인 공급과잉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만ha로 보고 작년 72만7000ha 대비 3만7000ha를 줄이기로 했다.

올해 새롭게 도입한 전락작물직불제를 활용해 1만6000ha, 지자체 자체예산과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으로 1만ha,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 타작물 재배로 2000ha, 기타 농지 전용 등 8600ha 등 3만7000ha 감축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달성하면 현재 추세보다 수확

기 산지 쌀값은 약 5% 상승하고, 격리 비용 44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쌀을 콩이나 하계조사료 등 타작물은 물론 가공용 가루쌀로 전환하면서 식량자급률 상승 효과도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벼 이외에 콩, 가루쌀, 하계조사료 등 타작물 생산 확대를 추진한다. 논콩과 가루쌀 재배농가가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공공비축을 강화한다. 콩은 최대 6만까지 매입하고, 논콩은 농가 희망 물량 전량을 정부가 매입할 계획이다.

가루쌀은 올해 전문생산단지(38개소)를 집중 육성하고, 생산단지에서 생산되는 가루쌀 전량을 정부가 매입해 식품기업에 공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대신 고품질 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다수확 품종 재배를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쌀 수급 안정에 부담이 되는 다수확 품종을 고품질 품종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수확 품종에 대한 공공비축 매입을 내년부터 제한한다. 정부 보급종 공급도 2025년부터 중단할 계획이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현재 쌀 시장의 구조적인 과잉 해소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벼 재배면적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지자체, 농협, 농진청 등과 함께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쌀 농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 온·오프라인 연계한 학습...푸르넷 '캠핑 키드키드' 출시



금성출판사 푸르넷이 메타버스·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유아 전문 학습 플랫폼 '캠핑 키드키드'를 출시하고 정규 수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캠핑은 태블릿 디지털 콘텐츠와 오프라인 심화 학습, 전문 지도교사의 1대1 맞춤 지도를 결합한 푸르넷의 유아 학습 시스템이다. 푸르넷 전문 선생님이 유아의 발달 상황에 맞는

오프라인 밀착 지도를 제공한다.

한 대의 태블릿으로 여러 자녀가 동시에 학습하거나, 태블릿 구매 없이 푸르넷에서 서비스만 이용할 수도 있다. 기기 약점이나 가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태블릿으로 만날 수 있는 캠핑 콘텐츠는 '놀이형 학습'으로 구성했다. 3차원(3D) 메타버스로 '캠핑 공간'을 구현해 자연 속 놀이 활동과

메타버스·AI 기반 유아용 플랫폼 학습을 연계했다. 학습, 독서 활동으로 아이를 얻어 공간을 꾸미도록 유도한 게이미피케이션(게임이 아닌 분야의 문제 해결에 게임적 사고와 과정을 적용하는 일) 활동도 더해 배움의 즐거움과 성취감도 느낄 수 있다.

캠핑은 45년 교과서 발행사인 금성출판사의 노하우에 200만 푸르넷 회원의 데이터가 더해져 완성도를 높은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한글,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놀이, 독서, 인성 등 초등 학습 대비에 필요한 전 과목, 전 영역 학습이 가능하다. 금성출판사가 엄선한 1000여권의 도서를 만날 수 있는 'AI북랜드'는 다양한 테마로 큐레이션했다.

학습 후에는 AI 학습 리포트와 1대1 맞춤형 학습 관리가 제공된다. 푸르넷 선생님과 함께 한글, 수예기부터 독서 훈련이 가능하다. 학생의 학습 수준에 알맞게 캠핑과 푸르넷 학습 시스템을 넘나들며 유동적인 학습 시스템을 제공한다.

금성출판사는 캠핑 정식 출시에 맞춰 캠핑 회원 포털사이트도 오픈했다. 포털 사이트에서는 캠핑 관련 질의응답(FAQ), AI 학습 리포트와 각종 워크시트·음원 파일을 받을 수 있는 공부방, 학원 회원용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김재환기자

## CU, WBC 와인 7종 출시...영화관람권 증정

편의점 CU는 8일부터 열리는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에 맞춰 차별화 와인을 출시하고 다양한 주류 할인 행사와 단체 관람 이벤트를 펼친다고 8일 밝혔다.

CU는 미국 야구팀 와인 대전이라는 콘셉트로 미국을 대표하는 주요 도시의 야구팀 와인 7종을 편의점 업계 단독으로 내놨다.

해당 상품은 LA 다저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NY 메츠, 시카고 컵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보스턴 레드삭스, NY 양키즈 까다.

이달 한 달간 1만2900원에 할인 판매하며 특히, 한국 대표팀의 경기가 몰려 있는 9일~15일엔 9900원 특별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 관람 시 많이 찾는 맥주에서는 6일 번들 14종, 4일 번들 13종을 9일부터 15일까지 한 캔당 2000원 꼴로 판매한다.

맥주 6일 번들 행사 제품은 크로넌버그 1664블랑, 에델바이스, 칭따오, 볼파스 엔젤 등 수입 맥주부터 공표첨대일, 크라운맥주, 제우트에일 등 국산 맥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구성으로 정상이 1만65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할인 판매한다.

맥주 4일 번들 행사 제품 역시 호기든, 버드와이저, 스텔라 등 수입 맥주와 백양BYC 비엔나 라거 등 국산 맥주를 1만1000원에서 8000원으로 가격을 낮췄다.

CU는 커머스 앱 포켓CU에서 메가박스 등 단체 관람 제휴 이벤트도 연다. 관련 이벤트 페이지



지에서 WBC 일본전(10일), 중국전(13일) 관람 쿠폰을 다운 받아 메가박스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영화로 WBC를 선택해 예매하면 선착순 2000명에게 팝콘(R) 무료 쿠폰을 증정한다.

또 응원 댓글을 남긴 고객들을 대상으로 총 50명을 추첨해 메가박스 영화관람권도 경품으로 제공한다.

유유나기자

## 2월 아파트 청약 경쟁률 4.8대 1 큰폭 상승...단지별 양극화

청약 미달률 절반 줄어 33.2%

올해 2월 전국 아파트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전월과 비교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월 70%가 넘는 청약 미달률도 절반으로 줄어 들었다.

8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4.8대 1을 기록했다. 전월(0.3대 1)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반면 1순위 청약 미달률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 미달률은 73.8%에 달했는데 지난달에는 33.2%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평균 청약경쟁률이 오르고, 미달률은 떨어졌지만 단지별로는 양극화가 나타났다.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서 공급되는 '에코델타시티푸르지오'는 1순위 평균 청약경

쟁률이 11.5대 1을 기록하면서 1위를 차지했다.

충북 청주 '복대자이더스카이' 8.1대 1, 경기 구리 '구리역롯데캐슬시그니처' 7.3대 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분양한 6개 단지 중 3개 단지는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0.1~0.7대 1에 그쳤다.

경기 수원 '수원성중흥S클래스'는 평균 0.7대 1, 인천 미추홀구 '더샵아르데' 0.4대 1, 광주 서구 '광주상무역골드클래스' 0.1대 1의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청약 미달률도 50~94.2%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한편 이달부터 본격적인 분양 성수기에 돌입하는 가운데 무순위 청약 조건이 개선되고, 전매제한 완화도 시행될 예정이어서 분양 시장 분위기가 반등할지 주목된다.

이슬비기자

실제 정부의 1·3 부동산 대책 이후 처음으로 서울에서 분양된 단지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청약시장에 '훈풍'이 불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영등포구 양평동에 공급되는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 1순위 청약 결과, 98가구 모집에 1만9478명이 몰리면서 평균 198.7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윤지희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3월 분양 시장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분양을 앞둔 1000가구 이상 규모의 대단지들이 분위기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최근 양극화된 청약시장 분위기를 감안하면 주변 시세 대비 적절한 분양가 책정 여부와 지역 내 교통 혹은 개발 호재 여부도 따라 단지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이라고 밝혔다.

## 광주 백화점들, 봄맞이 마케팅 '활짝'

광주 백화점 업계가 봄맞이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광주신세계백화점은 9일부터 19일까지 코스메틱페어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전 점포에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에스티

로더, 비오렘 등 화장품 브랜드 총 80여 개가 대거 참여한다.

광주신세계는 일부 브랜드에 한해서 오는 19일까지 금액 할인을 증정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8층 테이블웨어 브랜드인 빌레로이엔보르 매장에서는 오는 19일 까지 '봄 & 플라워 상품 특가전'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매장에서는 다양한 봄 테마 테이블웨어를 10% ~ 4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행사기간 중 매주 금,토,일에는 구매금액대별로 10%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증정하는 사은행사도 동시에 진행한다.

서선옥기자

## 아성다이소, 봄 시즌 맞아 '불이 빵빵한 친구들' 시리즈 출시

인형부터 활용도 높은 팬시·문구류 등 총 30여 종 선보여

균일이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가 봄 시즌을 맞아 '불이 빵빵한 친구들' 시리즈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불이 빵빵한 친구들'은 아성다이소에서 2019년 '가을 시즌 기획전'에서 처음으로 다뤄진 캐릭터를 출시해 품절 대란을 일으키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다.

이후 가을마다 새로운 캐릭터와 상품 카테

고리로 확장해 왔다. 지난해 봄에도 봄 감성을 입힌 캐릭터 인형을 선보였고 시즌에 어울리는 '불이 빵빵한 친구들'로 찾아오고 있다.

이번 기획전은 봄을 맞아 '도끼', '다람쥐', '뽀카' 캐릭터가 꽃장식 헤어핀과 스카프를 단장한 모습을 귀엽게 디자인했고, 인형부터 활용도 높은 팬시·문구류, 주방·리빙 용품 등 총 30여 종을 선보인다.

뉴스



## 뉴케어 '당플랜 병아리콩 해물볶음밥' 출시

대상웰라이프의 환자용 식품 브랜드 뉴케어는 당뇨환자용 식단형 식품 '당플랜 병아리콩 해물볶음밥'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당플랜 병아리콩 해물볶음밥은 음식 섭취에 제약이 많은 당뇨환자들을 위해 균형 있게 설계된 제품이다. 식약처가 정한 표준 기준에 맞춰 생산 돼 당뇨환자 등 당질 섭취관리가 필요한 이들이 한 끼 식사로 걱정 없이 섭취할 수 있다.

'당플랜 병아리콩 해물볶음밥'은 당 식이조절을 고려한 '고단백 저당' 설계가 특징으로 한 그릇에 23g의 단백질을 포함해 3대 영양소를 균형 있게 제공한다. 백미 대신 식물성 단백질

병아리콩과 현미를 사용해 당 함량은 2g으로 낮췄다.

정승호기자

